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너에게는 내가 있듯이, 나에게는 네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있듯이’의 품사는 부사이고, 문장 성분은 부사어인가요?

(이현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답 ‘있듯이’는 ‘-이’라는 부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부사인 것이 아니라 ‘-듯이’라는 활용 어미가 붙은 형용사입니다. ‘있듯이’는 형용사 ‘있다’의 활용형 ‘있다, 있고, 있어서, 있지, 있으니까, 있듯이……’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있듯이’의 품사는 여전히 형용사입니다. 단지 활용만 했을 뿐인데, 품사가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뀔 까닭이 없습니다.

‘있듯이’의 문장 성분을 ‘서술어’로 보는 것은 문장을 미시적, 분석적으로 보는 방법이고 ‘있듯이’가 포함된 앞 절 전체를 부사어로 보는 것은 문장을 거시적, 종합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있듯이’만 떼어서 내포절 속의 서술어로 보기보다는 “너에게는 내가 있듯이”라는 부사절 전체가 뒷 절(“나에게는 네가 있다”)을 수식하는 ‘부사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가 있듯이’라는 부사절 전체가 부사어 자격으로 후행절(더 좁게는 후행절의 서술어 ‘있다’)을 수식해 준다고 거시적으로 보아야 문장 구조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사어는 관형어와 같은 부가 성분으로 서술어에 덧붙여 그 뜻을 한정하는 기능을 하는 말입니다. 부사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어절·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으)로’, ‘와/과’, ‘보다’ 따위가 붙은 말, 어미 ‘-게’로 활용
한 형용사(‘꽃이 아름답게 피었다’의 ‘아름답게’), ‘부사성 의존 명사구’(예: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해라’의 ‘대로’ 등) 따위가 있습
니다.

문의하신 ‘있듯이’의 경우는 부사형 어미 ‘-듯이’에 기댄 형용사 ‘있다’의
활용형이 부사어로 쓰인 예입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듯이**, 나에게는 네가
있다’라는 문장에서 ‘-듯이’가 이끄는 부사절 전체가 부사어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듯이’의 품사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나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한
다.”와 같은 문장에서도 ‘없이’나 ‘달리’의 품사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
니다(※내포절의 본래 문장: ‘소리도 없다’, ‘(그가) 형과 다르다’). ‘없이’나
‘달리’를 내포절 속에서 다시 분석하여 문장 성분을 말한다면 모두 ‘서술어’
이지만,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 ‘형과 달리’라는 부사절 전체가 문장 안에
서 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거시적으로 문장 성분을 말한다면, 해당 부사절
전체를 부사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물음 ‘북악산’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Bukaksan’이 맞습니까,
‘Bugaksan’이 맞습니까?

(민요안,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답 ‘북악산’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Bugaksan’이 맞습니다.

‘북악’을 글자 그대로 표기한다면 ‘Bukak’으로 적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k, t, p로 적는 것은 ‘ㄱ, ㄷ, ㅂ’이 ‘받침 글자’일 때가 아니라 ‘받침 소리’일
때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북’이라는 글자에 이끌려 ‘북’이 들어간 말을
‘Buk’이라고 적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에
따르면 로마자 표기는 글자가 아니라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북’이라도 ‘북부’처럼 자음 앞에서는 ‘ㄱ’이

받침 소리가 되어 ‘Bukbu’로 적고 ‘복악’처럼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ㄱ’ 받침이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되어 [부각]으로 소리가 나므로 ‘Bugak’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면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경우에는 ‘종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잡혀[자펴] japyeo, 낱지[나치] nachi’와 같이 적습니다. 그런데 체언에서 ‘ㄱ, ㄷ, ㅂ, ㅈ’ 뒤에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이 되는 경우에는 그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목호’와 ‘집현전’의 발음은 [무코], [지편전]와 같이 나뉘므로 발음대로 적으면 ‘Muko, Jiphyeonjeon’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지 않고 ‘ㅎ’을 밝혀 ‘Mukho, Jiphyeonjeon’으로 적습니다.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h를 넣도록 한 것입니다.

[물음] 겨울철이 돼서 그런지 자꾸만 손끝에 살갓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이 있던데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진아, 광주시 광산구 동산동)

[답] 손발톱 뒤의 살 꺾질이나 나무의 결 따위가 가시처럼 얇게 터져 일어나는 부분을 ‘거스러미’라고 합니다. 특히 손톱이 박힌 자리 주변에 살갓이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는 ‘손거스러미’라고 합니다.

우리말 가운데는 ‘거스러미’처럼 신체와 관련한 고유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손톱을 들여다보면 뿌리 쪽에 반원형의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은 ‘반달’입니다.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목 부근에 안팎으로 둥글게 나온 뼈’의 이름은 ‘복사뼈’입니다. 흔히

‘복숭아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을 가리켜서는 ‘구레나룻’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렛나루’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또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은 그 모양을 본 따 ‘콧방울’이라고 합니다. 흔히 ‘콧망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말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눈곱’은 발음이 [‘눈뽀’]로 나기 때문에 표기도 ‘눈뽀’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입니다. ‘뽀’는 현재 독립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어사전에 ‘눈뽀’의 동의어로 올라 있습니다. 또 ‘손뽀’와 ‘발뽀’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각각 ‘손뿔 밑에 끼어 있는 때’와 ‘발뿔 밑에 끼어 있는 때’를 뜻합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콧볼이 두둑해야 수명이 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의 ‘콧볼’은 비표준어이므로 ‘콧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콧볼’과 ‘콧밥’은 동의어이므로 ‘콧볼이 두둑하다’ 대신 ‘콧밥이 두둑하다’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말 중에는 신체와 관련한 고유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어 생활을 하다 보면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거나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더라도 표기가 헛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여 어휘를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물음 감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밤을 새지/새우지 마라.”, “담배를 피지/피우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때 ‘새지’와 ‘새우지’, ‘피지’와 ‘피우지’ 중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동국,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답 “밤을 새우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마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다’와 ‘새우다’는 의미가 비슷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날이 밝아오다’라는 뜻의 ‘새다’는 자동사이므로 (1)의 예와 같이 목적어 없이 씁니다. 반면에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라는 뜻의 타동사이므로 (2)의 예와 같이 반드시 목적어 ‘밤’을 써야 합니다. “밤을 새우지 마라.”, “밤을 새웠다”에서도 ‘밤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동사는 ‘새다’(과거형: 새었다, 썼다)가 아니라 ‘새우다’(과거형: 새웠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1) 가. 날이 새는지 창문이 뿌옇게 밝아 왔다.

나. 우리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2) 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 밤을 새워 공부했다.

‘피다’와 ‘피우다’도 ‘새다’와 ‘새우다’와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씁니다. ‘피다’는 ‘연탄이나 숯 따위에 불이 일어나 스스로 타다’라는 뜻의 자동사이므로 (3가)과 같이 쓸 수 있고, ‘피우다’는 ‘피다’의 사동사이자 타동사로서 (3나)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다”에 쓰인 ‘피우다’는 일반적인 ‘피다’의 사동사 ‘피

우다'와는 다릅니다. 이때의 '피우다'는 '피다'의 사동사가 아니라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라는 뜻으로 구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다/피다.”는 항상 ‘피우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3ㄷ)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3) ㄱ. 연탄불이 잘 피지 않는다.
- 나. 연기를 피워서 신호를 보낸다.
- ㄷ. 아편을 피우다.

▶[물음] “누가 나한테 공을 맞췄지?”, “그건 바로 동생이었다.”라는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봉규,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답] “누가 나한테 공을 맞혔지?”, “그건 바로 동생이었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히다’는 ‘맞다’(‘쏘거나 던지거나 한 물체가 어떤 물체에 닿다. 또는 그런 물체에 닿음을 입다’라는 뜻의 동사)의 사동사입니다.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예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 ㄱ. 그는 두 번째 화살도 과녁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다.
- 나. 돌맹이를 넣은 눈덩이로 소녀의 얼굴을 맞히다니 너무 비겁한 것이다.
- ㄷ. 그 소년은 과녁에 정확히 화살을 맞혔다(←맞히었다).

위에 제시한 ‘명중시키다’ 외에도 ‘정답을 알아맞히다’라는 의미의 ‘맞히다’(예: 20문제 중 18문제를 맞혔다)도 있고, 또 다른 의미의 ‘맞히다’도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따라 내리는 눈, 비 따위를 맞게 하다’라는 뜻의 ‘맞히

다': (예) 우산을 갖고 가지 않아서 아이한테 비를 맞히고 말았다. ② '어떤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게 하다'라는 뜻의 '맞히다': (예) 남의 물건을 허술히 두어 도둑을 맞히다니 네 잘못이 크다. ③ '침, 주사 따위로 치료를 받게 하다'라는 뜻의 '맞히다': (예)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 침을 맞혀 드렸다.)

그리고 '동생이었다'에서 '이었'은 서술격 조사 '이'에 어미 '었'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때 '*동생이었다'나 '*동생였다'가 될 수 없는 것은 '이었'이 '였'으로 줄 수 있는 환경에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과 같이 받침이 있는 말 뒤에 서술격 조사 '이'와 '었'이 연이어 오는 경우에는 '이었'을 '였'으로 줄여 쓸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문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가. 우리 남매 중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은 큰형이었다.
 나. 우리 남매 중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은 *큰형이였다.
 다. 우리 남매 중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은 *큰형였다.
- (2) 가. 과자를 사러 간 사람은 고모부이었다.
 나. 과자를 사러 간 사람은 *고모부이였다.
 다. 과자를 사러 간 사람은 고모부였다.

이처럼 '이'와 '었'이 '였'으로 줄 수 있는 경우는 (2나)의 예처럼 앞말의 받침이 없을 때입니다.